

#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몸' 양식의 탈고정적 표현에 관한 연구

이 신 영\* · 김 혜 영\*\*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전공 부교수\*\*

## The Research on Post-modern Feminism and the Expression of the Post-Fixation of Body Pattern

Shin-Young Lee\* · Hye-Young Kim\*\*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02. 9. 6 투고)

### ABSTRA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modern feminism and the body, the body of women, which has been taken as 'other' by dominant arguments, has escaped from the fixed idea at post-modern times and the post-modern feminists tried to escape from the taste of the times about body image that was prevalent in the former times. 'The taste of the times' here means the fixed physical form of ideal women's body by the educational custom, and it includes the educational prescription which establishes the docile body of women. This kind of educational custom aims at the perfect and permanent restriction on size, shape, desire, attitude and movement as well as on the overall demeanor and each part of the body. And the custom produces 'dependent and trained', that is, inferiorized women's body.

Hence,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feminity as a fixed physical form should be overcome in order to move forward, and as one part of the effort, it attempts to analyze the designs which deformed and distorted women's body in 1990s.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he work, which tries to deviate the fantasized and casted women's mystery, has been closely connected with the expression of 'non-separate bodies' and 'irregular body shapes' in 1990s, which aims at escaping from the fixation of women's body image.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target design trend of this research, which expressed the deformation and perversion of the body, provides the anti-these against the ideal body image of women and the these of feminity, which have been reproduced in various methods and patterns throughout the public and the culture on the whole by expressing the refusal and deviation of the existing women's body image through the post-fixation of the body pattern.

Key Words: contemporary fashion(현대 패션), post-modern feminism(포스트모던 페미니즘), body(몸), deformation(변형), perversion(왜곡)

## I. 서론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페미니즘(feminism)은 여성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여성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서구사회를 지탱해온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해 반발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된 가치 및 대상들에게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으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개막을 알리면서,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제3국의 문화양식과 저항문화, 타자<sup>1)</sup> 등 주류문화가 되지 못하는 억압된 문화에 관심을 돌리는 점에서 관심을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페미니즘과 사회에 대해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페미니즘을 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으로 거듭나게 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공통된 특징인 일체의 이항대립과 '자기 동일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여성에 적용하여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하려는 경향으로, "의미화의 특정 체계들 내에서 생산된 고정되지 않은 여성성이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변하는 문화적 성별(gender)로서의 여성성을 비고정적 범주로 파악함으로써 모더니즘적 형이상학적 전통을 해체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최근 패션에서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패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적 전략을 통하여 패션에서의 남녀 이분법을 해체시키고 있는 것이다.<sup>2)</sup> 이는 현대 패션에 있어 이분법적 성차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남녀의 대립항적인 항목들을 거부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닌 문화와 사회적인 성(gender)으로 시선을 돌리

고, 또한 여성만의 해방이 아닌 남녀의 공동 해방이라는 휴머니티(humanity)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중요한 디자인 사조로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3의 성표현은 고정되지 않은 여성 정체성을 표현함으로써 패션에 있어서의 전통적 성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경향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탈고정성을 획득한 여성성과 여성 몸 이미지의 변화를 패션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패션은 인간의 몸을 떠나서는 형성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각 시대와 문화가 요구하는 몸 양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즉, 패션은 그 시대의 담론에 따라 이상적인 인간의 몸 양식을 표현해 왔었다. 따라서 현대 포스트모던시대의 '여성성'의 변화에 따른 여성 신체 이미지의 변화는 패션에서의 여성 신체 표현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즉, 현대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성담론에 의한 탈고정적 성표현으로 인하여 기존의 아름다운 신체에서 벗어난 탈고정적 신체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패션은 기존의 여성미를 표현하는 많은 디자인에 있어 중심주제가 되어온 여성의 이상적인 '몸'을 변형, 왜곡하는 작업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기존의 환상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지배체계에서 미시권력인 '훈육적 관행'에 의해 구조화된 여성이미지를 탈피, 파괴함으로써 기존 여성 이미지의 탈고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들이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이유는 패션이 가장 기본적인 성표현의 장(場)이라는 점에서 성을 해체하고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현하며, 새로운 여성 이미지를 재구축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션에서의 성표현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패션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제3의 성표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큰 사회적 영향력의 결과인 여성 신체의 새로운 표현, 즉 고정적 여성 신체와 몸 이미지에 대한 변화와 그에 따른 패션에서의 여성 이미지 표현방식의 변화 및 고정된 여성 신체의 탈고정화를 향한 표현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 결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아직까지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적 특성에 따라 연구되어야 할 경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탈고정성을 획득한 여성성과 여성성의 담지체인 몸 이미지의 변화를 패션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패션을 통한 이상적인 몸 이미지의 탈고정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

둘째, 여성성을 고정화하는 미시권력인 훈육적 관행을 연구하고 그러한 관행에 대한 미시적 저항지점으로서의 패션을 연구함으로써 패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인 미시권력은 21세기 다양한 이미지의 생산 원인과 방식, 확산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이론으로, 미시권력으로서의 훈육적 관행에 의한 몸 양식의 고정화에 대한 논의는 현대 몸 양식의 이미지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패션의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연구에 있어서 사회학적인 개념 적용이 미비한 현 연구 상황에서 중요한 의의가 될 것이다.

## II.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역사상 최초의 페미니스트였던 14세기의 크리스

틴 드 피상(Christine de Pisan)으로부터 계몽주의 여권운동가들을 거쳐 20세기 초의 버지니아 울프(Virginia Adeline Woolf), 시몬느 드 보바르(Simone de Beauvoir)에 이르는 초창기 페미니즘은 눈앞의 권익만을 추구했을 뿐 성차별의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킬 시각은 갖지 못하였다. 반면에 여성을 타자로서 규정된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구조적 모순에 주목할 뿐 아니라 여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제적인 모던 사회에서 소외 받고 열외 시 되어왔던 여성에 대한 의식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서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기 시작한다.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이론의 토대 위에서 논의 가능한 페미니즘을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사회과학분야의 이론 중에서 페미니즘에 영향을 준 것은 구조주의,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이론, 자끄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 이론,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등이다.<sup>3)</sup>

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은 구조주의 페미니즘에 의하면 여성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여성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지시해 주는 문화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 차별적인 성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구조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사물이나 세계가 변화 가능한 '만들어진 것' 내지는 '구조화 된 것'이라는 구조주의와 기호학적 입장에 의존하여 여성은 기호의 자의성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비고정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여성을 구축한 구조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여성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표와 글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언어 구조를 전복시키고 의미(기의, 말)를 박탈하는 데리다의 해체작업은 글보다 말에 우선권을 주는 형이상학적 전통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데리다는 절대적인 기초나 제일원리에 의존하는 모든 사고체계에 대해 '형이상학'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근원이나 기초가 되는 중심적 체계와 통일성의 원리를 해체하고자 함은 이항대립이라는 이분법을 거부하는 태도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그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제

일원이나 절대적인 기초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른 중요한 것들을 제외시킴으로써 그 존재 이유를 부여받고 정의되는데 그러한 함은 이항대립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p>4)</sup> 랑그/파를, 기의/기표, 글/말, 주체/객체, 정신/육체, 본질/현상, 이성/감성, 중심/주변, 시각/촉각, 남/녀 등과 같은 대립항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어떤 주종의 개념을 내포하는데, 데리다에게 있어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오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다의 해체는 이분법적 서열의 전복인 동시에 이분법적 사고 자체의 무효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남녀의 이분법적 구조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에서 데리다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짙은 호소력을 지닌다. 해체를 통해 ‘여성-감성-촉각-주변’이 ‘남성-이성-시각-중심’의 하위라는 계급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sup>5)</sup>

정신분석학을 다루는 기본입장을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상징의 세계<sup>6)</sup>로 보는 라캉은 의학, 생물학 또는 사회학보다는 언어학이 정신분석학을 수행하는데 있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구조적 언어학에 관심을 보이며 언어를 ‘기표’와 ‘기의’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는 소쉬르의 입장을 그의 이론에 적용시킨다. 그러나 라캉은 기의에 우선성을 두는 소쉬르와는 달리 언어는 끊임없는 기표들의 물결로서, 말하는 주체에 의해 기표들간의 차이를 통해서 소급하여 잠정적으로 의미를 얻을 뿐이라고 주장한다.<sup>7)</sup> 이렇게 기의의 임의성과 비재현성을 주장하는 라캉의 입장은 데리다와 같다. 즉, 라캉 역시 어떤 개념의 의미가 언어로 구현되기 이전에 이미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정통 서구 형이상학의 논리와 언어, 의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라캉이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신체적 성기(penis) 대신 상징적 남근(phallus)을 축으로 하는 주체성의 개념화 혹은 언어화 과정이다. 라캉이 남근이라고 칭하는 성차의 기표는 상징 질서의 가부장제적 구조-권력과 지배-를 보장하는데, 이는 부계사회의 법인 아버지의 위치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아버지는 프로이트에

서처럼 생리학적 아버지가 아니라, 남근에 의해 상징적으로 구현되는 아버지라는 이름, 즉 언어로 등록되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다.<sup>8)</sup> 라캉의 이론은 신체적 차이가 구심점을 이루는 프로이트의 해부학적 결정론을 초월하여, 성 주체성 획득이란 의미화 과정을 통하여 구축된다는 비결정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의 관심을 끈다.<sup>9)</sup> 그러나 라캉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발전시켜 페미니스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을 형성했다고는 하나 남근이라는 남성적 특권을 설정한 까닭에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부계질서를 떠받치는 하나의 남성적 담론에 그치고 만다.<sup>10)</sup> 그러나 라캉이 제시하는 성 주체성 획득의 비결정론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 중 한명인 크리스 위든(Chris Weedon)은 푸코의 이론에 대하여 여성해방주의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이론이라고 하였으며, 그녀는 푸코로부터 여성해방주의가 나아갈 길을 찾는다. 담론, 권력/지식, 나아가 성장치(sexuality)를 문제삼는 푸코의 이론은 그의 사상의 골자를 이루고 있고 또한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론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푸코에게서 담론은 사회적 실천과 함께 지식과 진리를 구체화하고 형성하는 방식이며, 그 지식에 내재해 있는 권력관계와 주체성의 종류들이며, 지식과 권력과 주체성간의 관계들<sup>11)</sup>으로써 강력하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들이다. 권력은 담론 내부에서 구성되며, 담론과 담론들 사이의 차이, 즉 담론에 의해 구성됐고 담론의 실천자인 주체들간의 통제의 불균형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생기는 일종의 관계이다. 그렇지만 권력은 특정한 근원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담론들 내부에 있기 때문에 도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은 복합적,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그물망과 같으며 이를 미시권력이라 칭한다. 이러한 미시권력에 대한 이론은 현대 21세기의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한 해석에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이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 푸코는 권력을 지식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한다.

그에게 지식이란 타자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며 타자를 규정하는 권력이다.<sup>12)</sup> 푸코는 또한 성에 대한 권력의 관계를 성적 담론에 얽힌 힘의 논리에 적용시켜 여성의 통제, 특히 성장치와 여성의 신체를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즉, 젠더(gender)는 물론이고 신체와 섹스(sex), 성별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며 권력의 효과로 생산된다는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이 점이 페미니스트들이 주목하는, 또한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비판하는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성의 정치적 의미인 것이다.<sup>14)</sup> 또한 푸코가 제시하는 미시권력의 하나인 규율권력에서 논의하는 훈육적 관행은 여성성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훈육에 대한 논의의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론은 구조주의, 정신분석학 이론, 해체 이론, 권력 이론 등 동시대의 다양한 담론들을 활용하고, 특히 주체나 사물의 본질이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는 전통적 철학을 부정하는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타자는 여성으로 대변된다는 것을 통하여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을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립하고 있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이론을 통하여 남녀 이분법을 해체하고 있다. 셋째, 결국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성의 탈고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지배적이었던 권력자체를 해체하고 다양한 차별적인 것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III.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몸 양식의 고정화를 유도하는 훈육적 관행

여성의 몸을 둘러싼 현대의 논쟁은 여성이라는 범주를 규정하는 것과 그 범주에 도전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논쟁들은 여성의 몸을 규정짓는 육체적 특징이 무엇이며, '여성적' 자질 및 관행은 무엇

인지 살피고 있다. 여러 이론가들은 젠더 자체가 수행적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여성의 몸과 여성이라는 젠더가 필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증대시켜 개인적으로 각각 어떻게 구체적으로 젠더를 체현(體現)하는지-예를 들면, 몸과 자아 사이에 양립 불가능한 관계로 인식해온 것을 바꾸기 위해 문자 그대로 몸을 바꾸거나, 아니면 상투적으로 이해되는 젠더의 경계를 가지고 유희함으로써-살피고 있다.<sup>15)</sup>

#### 1.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몸

현대에 이르러 몸이 그 자체로 구체적인 연구대상이 된 이유에는 이 시대의 사회적, 학문적 변화를 들 수 있다. 현대의 몸은 그 사회적 의미가 변화하였는데,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몸을 통제하는 정부 또는 지배권력을 갖고 있는 일종의 권력기제에서 몸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최근에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그들의 자아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개인적 소유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몸에 대한 관심은 과거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훈육, 권력 작용에 대한 연구와 현대 여성의 몸이 갖는 새로운 의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확장되고 있다.

##### 1) 전통적 담론 내에서의 이상적인 여성의 몸의 전형

과거 여성의 몸에 대한 이미지는 그 시대의 '여성성'에 대한 담론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여성의 몸에 대한 육체적 양식은 그 시대의 이상적인 몸 이미지에 따라 변화하였다.

서구철학에서는 물질은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인 반면 정신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위계적인 이분법의 가부장적 전형이 남성을 이성, 여성을 감성과 동일시하고 있다.<sup>16)</sup> 또한 여성은 생물학적인 조건들로 인해 남성보다 더 육체와 가까운 존재로 간주되면서 자연과 함께 연상되어 있다. 그래서 서구 철학에서 여성은 비합리적이고 정념적이며 정복되어야 하는 존재이며, 유희적

이고 연약하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직관에 의존하는 논리적으로 비일관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왔다.<sup>17)</sup> 존 로크(John Locke)는 「통치권에 관한 두 번째 논문」(1690)에서 인간을 포괄적 의미로 다루기 보다 남성이라는 권위로 국한시키며 여성은 합리성이 결핍된 존재로 자유롭고 동등한 개인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자연법을 주장한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또한 자유·평등·독립의 사회상태 실현이 그의 과제였으나 그것은 남성만의 문제이고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성에게 종속된 자유, 평등, 독립과는 무관한 존재로 보았다.<sup>18)</sup>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감성을 시대적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동시에 자율적인 법칙을 갖지 않으므로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감성은 무법칙적, 이질적인 경향성을 가지며 비개념적, 신체적인 것이므로 남성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칸트는 남성의 성은 고상한 성이고, 여성의 성은 아름다운 성이라고 규정하여 남성의 덕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여성의 덕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성은 종족보존을 위하여 어려움이 많고 소극적이며, 사회의 세련화를 위해서 섬세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다고 하였다.<sup>19)</sup> 또한 1759년에 출판된 버크(Edmund Burke)의 저서 「미와 숭고의 개념적 기원에 대한 고찰」(1759)에서 버크는 성별의 체계에 있어서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잣대로 명백하게 구분하는 용어로 숭고의 범주는 남성의 용어로 특징짓고, 미의 범주는 여성적 용어로 특징짓고 있다. 버크에 의해서 미로써 경험된 대상들에 주어진 특성들은 작음(smallness), 매끄러움(smoothness), 곡선적임(curviness), 섬세함(delicacy), 깨끗함(cleaness), 부드러운 색채(soft coloration), 저항의 결여(lack of resistance), 조용함(quietness) 등이며, 숭고의 감정을 야기한다고 말해지는 대상의 속성들은 거대함(vastness), 거칠음(roughness), 들쭉날쭉함(jaggedness), 무거움(heaviness), 강한 색채(strong coloration), 딱딱함(hardness), 큰 목소리(loudness) 등이다.<sup>20)</sup>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성에 대한 개념은 여성의

몸 이미지에 그대로 투사되고 있다. 모더니즘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의 몸과는 달리 지속적인 양가적 태도를 자아내는 요인이 되어 왔다.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데서 여성의 몸은 엄청난 미지의 힘을 갖는 자연의 일부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불안정성'과 '신비주의'와 연결되었다. 이는 자연의 다른 영역들처럼 여성의 몸은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남성의 몸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문화적이고 체계적인 지배의 도구로 여겨졌다.<sup>21)</sup>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는 전통적으로 정신을 강조하는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육체를 수치의 대상으로써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여기서 육체란 인간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인간에게 수치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르트르는 육체의 부끄러움의 원인 또는 자율성을 흔들리게 하는 나약함의 원인을 '여성'이라는 존재와 연결시킨다.<sup>22)</sup> 즉,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여성은 음란하며 남성을 위협하는 존재인 것이다. 또한 그러한 여자의 음란함을 무질서한 자연, 끈적거리는 것, '반가치'(antivalue)로 연장시킨다. 끈적거림(sliminess)은 정당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병렬적 달콤한 여성의 보복'이며, 그러한 보복은 '반가치'이다. 사르트르에게 있어 여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자연과 동치되며, 촉각적이고 악마적 매력을 가진 끈적거리는 것이며, 반가치로서 영원한 타자일 수밖에 없다.<sup>23)</sup>

이와 같이 전통적 여성신체는 지배적 담론에 의해 타자로 놓여져 왔었다. 이러한 여성신체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이르러 탈고정성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포스트모더니즘 이전 시대의 몸의 이미지에 대한 시대적 기호를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2)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몸에 대한 해석

우리가 '여성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실제로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묻는 것이다. 즉, 어떻게 담론이 '여성'이라는 범주의 틀을 그려내는가, 이 범주를 유지하거나 폐기하는데 있어 무엇이 문제-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인가에 대해 묻

는 것이다.

1949년 보봐르가 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이러한 질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질문은 페미니스트 운동권에서 오래된 논쟁, 여성들이 어떤 공통된 '본질적인' 특징을 갖는가, 아니면 여성이라는 개념 전체가 사회적 구성물인가 하는 논쟁을 예측하게 한다. 『제2의 성』(1953)은 분명히 여성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보봐르의 주장대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봐르가 페미니즘 이론에 중요하게 기여한 바는 자아와 타자라는 철학적 범주를 젠더의 구분에 적용한 것이다. 그녀는 남성은 자아/주체로 여성은 타자/객체로 구성된 체계 속에 작동하는 성의 정치를 폭로한 것이다. 보봐르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은 "타자성, 여성의 대체성의 덕을 본다."<sup>24)</sup> 보봐르는, 특히 타자는 내재성에 갇힌 채 육체의 형태, 크기, 기능에 의해 정의되고 규정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반면 자아는 초월적인 것으로 상상되어 왔다. 궁극적으로 보봐르는 자아/타자, 남성/여성, 정신/몸의 분리가 서구문화에 아주 친숙한 이분법적 대립의 기초임을 보여준다.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감금은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출산은 여성의 생산성을 규정하고, 움직임을 제한한다. 보봐르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은 세부적 신체기관의 제한을 받는 반면, 남성은 그러한 한계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 유일한 이유는 남성은 "자신의 몸에 고환과 같은 내분비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성은 자신의 몸이 세계와 직접적이고 정상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sup>25)</sup> 여성의 '본성'(nature)이라는 개념을 창조해온 사람은 바로 남성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성들은 자신들과 외부적 '자연'(Nature)이 맺는 양면적 관계를 여성의 몸에 투사하는 것이다. 남성은 황야, 대지, 초목지를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문명화한다.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는 여성 역시 문명화의 대상으로서 이해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연의 한 형태가 된다. 사실 문화적으로 소위 '자연스러운' 여

성의 육체적 특징-예를 들어, 가는 허리, 작은 발, 긴 머리 등-을 높이 평가해왔는데, 이런 특징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방법이 필요하다. 즉, 코르셋, 전족,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보봐르는 "옷을 차려 입고 치장한 여성에게, 자연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절제된 형태로 나타난다. …… 여성에게 있어 더 고도로 발달되고 더 엄격하게 제한된 자연이 나타날수록 그 여성은 더 바람직한 여성이 된다"<sup>26)</sup>라고 지적하였다. 자연에서 문화로 변화하기 위해서, 여성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욕을 거부해야 하며, 소위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하는 비위협적인 '유순한' 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sup>27)</sup> 즉, 여성은 모든 가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체현하도록 권유받는 것이다. 이는 문화 속에서 남성에게 의해 규정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들은 여전히 체중 조절, 피부와 머리 손질, 유행에 대한 관심, 무엇보다도 노화 방지와 같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규제적인 치장 관례를 통해 여성이 '되도록' 권유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보봐르의 지적은 미셸 푸코의 미시권력에서 말하는 규율권력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모더니즘 담론에 의해 육체라는 텍스트에 각인되는 여성은 언제나 육체에 침투한 언어 안에서 작동하는 관계적인 권력의 장에 의해 꾸며졌으며, 이는 위계질서, 단일의미, 이성중심주의라는 초월적이고 외재화 된 언어 속에서 그 자체를 표명하는 낯은 가부장적 권력의 담지체임을 간파하고 이러한 육체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여성성'은 탈고정성을 획득하였으며, 이러한 '여성성'의 탈고정화를 위해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이미지화 된 여성, 주물화 된 여성의 신비를 일탈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역설적 전략을 통해 현대의 의미체계 속에서 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지의 세상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남용되는지에 강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이에 게일 파우슈(Gail Faurshou)는 아름다움은 더 이상 '자본주의 이전 문화의 범주'로 정의 내려질 수 없다고 하였다.<sup>28)</sup> 그녀의 이러한 논의는 여성의 몸에

대한 미의 정의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탈고정화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2. 몸 양식의 고정화를 유도하는 혼육적 관행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의 몸에 대한 양식은 푸코가 말하는 규율권력에 해당하는 ‘혼육적 관행’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되어 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여성의 몸에 대한 ‘육체적 양식’을 고정화하는 혼육적 관행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탈피되고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서의 전통적 여성성은 혼육적 관행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되어 왔으며, 이러한 혼육적 관행은 이상적인 여성성의 자질 뿐 아니라 그 담지체인 여성의 몸 또한 이상적 양식으로 정형화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푸코는 의회 제도와 새로운 정치적 자유 개념이 출현하는 것과 더불어 일종의 역(逆)운동-즉, 몸을 겨냥한 전례 없던 새로운 종류의 혼육이-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제 몸은 단순히 정치적 충성을 강요받거나 육체노동의 산물을 착취당하는 것 이상을 요구받고 있다. 즉, 새로 나타난 혼육은 몸에 침투하여 다름 아닌 몸의 온갖 효력과 작용을-몸 동작의 경제성과 효율을-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푸코가 설명하는 혼육적 관행은 특히 근대적 형태의 군대, 학교, 병원, 감옥, 공장과 결부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혼육 기관들의 목표는 몸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것, 즉 몸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sup>29)</sup>

그러니까 몸에 가해지는 강압의 정치가, 즉 몸의 활동, 동작, 행동에 대한 계산된 조작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몸은 몸을 살살이 조사하여 파괴하고 재정비하는 일종의 권력 기제(機制)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역시 일종의 ‘권력 장치’인 ‘정치적 해부’가 탄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 해부’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타인의 몸이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인의 몸이 작동하도록, 자기가 정하는 기술과 속도와 효율에 따라 타인의 몸에 대해 지배권을 갖는 방법을 규정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혼육은 종속되고 훈련된 몸, 즉

유순한 몸을 생산해낸다.<sup>30)</sup>

근대의 ‘유순한 몸’을 생산해내는 혼육적 관행을 설명하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도구적 이성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방법들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설명에 방대한 역사적 사례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푸코는 일관적으로 마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즉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경험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근대적 삶의 특징적 제도와 동일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몸을 다룬다. 여자의 ‘유순한 몸’, 즉 남자의 몸보다 더 유순한 몸을 만들어내는 혼육적 관행에 대한 설명은 매우 미비한 것이다. 남자처럼 여자도 많은 경우 푸코가 설명하는 동일한 혼육적 관행에 속해 있다. 그렇지만 푸코는 특별히 여성적인 몸 만들기의 양식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혼육적 관행들을 보지 못한다. 여성적인 몸을 만들어내는 종속의 형식들을 간과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혼육을 당해온 사람들의 침묵과 무력함을 영속화하는 일이다. 그 이유로 권력을 비판하는 푸코의 목소리에서 해방적인 어조가 들려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푸코의 분석은 서양 정치이론 전역의 풍토병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해낸다.<sup>31)</sup>

인간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지, 남성이나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성성은 만들어지는 것, 즉 습득되는 것으로, “그만큼 다양한 육체의 양식들을 포괄하는 기존의 성 규범을 제정하고 다시 제정하는 일종의 방식”<sup>32)</sup>이다. 현대사회에서 몸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되고 있음은 몸에 대한 혼육적 관행의 증가와 세분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샌드라 리 바트키(Sandra Lee Bartky)는 그의 연구에서 몸짓과 외모에서 뚜렷이 여성적인 몸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혼육적 관행들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는 일반적인 외모의 몸을 만들어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행들이다. 이러한 관행은 전통적 담론 내에서의 이상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외모의 몸을 만들어내는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는 일반적인 외모로서의 몸이 아닌, 전통적 관념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를 표현하는 경향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디자인 경향을 '비분리적 신체 표현'의 디자인 경향으로 분류·분석하고자 한다. '비분리적 신체 표현'의 디자인 경향은 일반적인 외모로서의 몸의 형태, 즉 사지(四肢)가 모두 분리되어져 있는 정상적인 몸의 유형이 아닌 몸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어야 할 신체의 부분들이 비분리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전통적 담론 내에서의 이상적인 몸, 일반적인 외모의 몸에 대한 관행에 저항하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정한 크기의 몸을 생산해내는 관행들이다. 이러한 관행은 여성의 몸 각 부위에 대한 이상적인 일정 크기를 부여하며, 훈육적 관행을 통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그러한 크기에 자신의 몸을 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저항과 전통적 담론에서의 이상적인 여성 몸의 크기에 대한 탈고정화를 꾀하는 디자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적 신체 표현'의 디자인을 분석할 것이다. '비정형적 신체 표현'의 디자인 경향은 여성의 몸 각 부위에 대하여 크기 및 형태의 왜곡, 변형을 가함으로써 일정한 이상적인 형태의 여성 신체에 대한 관행에 저항하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바트키는 또한 위의 두 가지 관행에 더하여 여성적인 몸을 생산하는 관행들로 다음의 관행들을 들고 있다. 그것은 몸으로부터 구체적인 몸짓, 자세, 동작의 일람표를 작성해내는 관행들과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몸을 꾸며진 피부로 과시할 것을 겨냥한 관행들이다.

그녀는 이와 같은 훈육적 관행들의 본질과, 그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강제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훈육의 강제가 여자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푸코가 설명하는 일반적 모형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온 근대화, 즉 가부장적 지배의 근대화라는 관점에서 그와 같은 훈육적 관행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여성에 대한 '일정한 크기와 일반적인 외모의 몸을 만들어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훈육적 관행'으로 바트키는 그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현재 유행하는 몸매는 탱탱하고 가슴이 작으며 엉덩이가 좁고 거의 수척할 정도로 날씬한 몸매

다. 그것은 성인 여자라기보다 청소년기의 남자아이나 사춘기에 갓 접어든 여자아이에게 더 걸맞아 보이는 실루엣 같은 모양이다. 보통의 여자들은 대개 그와 아주 다른 체구를 갖고 있으므로 물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여성지들은 사실상 매호마다 다이어트에 관한 기사를 실는다. <레이디 홈 저널(Ladies Home Journal)> 1986년 2월호에는 「지방 연소 운동법」이 실려 있는가 하면, <마드무아젤(Mademoiselle)>은 「날씬해지는 여섯 가지 비결」과 함께 「셀룰라이트(cellulite) 퇴출법」을 소개하고 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여름 비키니 철 전까지 이와 같은 기사들의 제목은 더욱 극성을 부리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여름을 향하여 몸매관리에 뛰어들어라!», 「겨울에 쌓인 추악한 지방을 최신식 그레이프 프루트 다이어트로 벗어 던져라!」 등 아예 명령투로 독자를 대한다……다이어트는 몸의 시장기를 혼란시킨다. 즉, 식욕은 늘 감시당하고 철통같은 의지에 의해서 억제되어야만 한다. 음식물을 원하는 유기체의 죄 없는 육구는 떨칠 수 없을 것이므로, 몸은 훈육적 방침에 방해가 되는 이질적 존재로서 적어 된다...33)

...하지만 여자들만을 위한 운동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신체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안정시키거나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여러 부위들을 유행하는 모형에 맞춰서 다시 조각하려고 고안된 것들이다. '국제적 미용전문가' 새핀(M. J. Saffon)은 자기가 개발한 열두 가지 기본적 안면 운동법으로 미간의 주름을 지우고, 이마를 매끄럽게 하며, 패인 볼을 돋우고, 눈꼬리 주름을 없애며, 턱밑 살을 탱탱히 당겨 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가슴을 키우는 운동법도 있고, '몸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여자 특유의 지방질이라고 하는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운동법들도 있다. '부분 살빼기'도 있는데, 이것은 굵은 발목이나 '새들백'(saddlebag) 모양의 허벅지 같은 '문제 부위'의 살을 빼도록 개발된 수십 가지 집중 공략적 운동법들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34)

위는 바트키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자에게 적절한 체구라고 훈육되어 지는 것들의 예시이다. 이

모든 예시들은 모두 여성의 몸에 대한 훈육적 관행들로, 이러한 훈육적 관행들은 이상적인 여성성을 갖춘 몸-따라서 여성적인 몸-주체-이 구성되는 과정의 일부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훈육적 관행들은 '훈련되고 종속된' 몸, 즉 열등한 지위가 새겨진 몸을 만들어 낸다. 미용과 관련된 많은 광고들에서는 여자들에게 자기 몸이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전략을 취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소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여성에게 피부어지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여성적 아름다움의 이미지들은 대부분의 여자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자기들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좌절감을 남겨놓는다. 즉, 여성성이라는 훈육 기획은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몸의 변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든 모든 여자는 사실상 어느 정도 실패할 운명에 처한다. 따라서 자기가 저주하는 몸이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여자의 의식에다가 다소간의 치욕감이 더해진다.<sup>35)</sup> 그러나 이성애가 제도화된 체제에서 여자는 자신을 남자를 위한 '대상물과 먹이'로 만들어야만 한다. 즉, 여성의 눈이 호수처럼 맑고 여성의 뺨이 아기살처럼 부드러운 것은 바로 남자를 위한 것이다.<sup>36)</sup> 현대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대부분 여자들의 의식 속에는 푸코가 말하는 파놉티콘의 감시관 같은 남성 감시가가 상주하고 있다. 즉, 여자들은 항상 남성 감시가의 시선 앞에서 그의 평가를 받으며 있는 셈이다. 여자는 다른 사람이, 즉 불특정 대상의 가부장적 타자가 보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sup>37)</sup>

푸코는 몸에 훈육이 가해지는 것을 학교, 공장, 감옥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관들의 소행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훈육이 제도에 의해 구속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제도로부터 풀려날 수도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바트키는 말한다. 훈육적 권력의 익명성과 광범위한 확산은 여자의 종속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도적 지령을 수행할 권력 당국이나 공식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은 여성성의 생산이 전적으로 자발적이거나 자연적이라는 인상을 빚어낸다. 훈육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권

위체제에 속한 하급자들에게 강제되는 것이다. 학생, 죄수들과 징집된 병사들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훈육에 속해 있다. 그렇지만 훈육은 가령 어떤 사람이 선불교의 정신적 훈련에 입문하기를 원할 때처럼 자발적으로 추구될 수도 있다. 물론 훈육이 두 경우를 모두 겸할 수도 있다. 즉, 지원자는 군대가 제공하는 신체적·직업적 훈련에 자원하고, 군대는 끊임없이 철저하게 그 지원자를 비롯한 같은 계급의 다른 병사들을 훈육을 통해 복종시키는 경우가 그렇다. 여성의 신체적 훈육 역시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여성성의 훈육적 관행들이 '종속되고 훈련된', 즉 열등화 된 몸을 생산해내는 한, 그러한 훈육적 관행들은 훨씬 더 큰 훈육 체제-즉,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성적 종속체제-의 양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체제는 여자를 남자의 유순하고 순종적인 동료로 확실히 변화시킬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즉, 여자의 '유순한 몸'을 구축해내는 훈육적 기술들은 영속적이고 빈틈없는 규제-몸의 크기, 모양, 욕망, 자세, 동작에 대한, 그리고 전반적인 처신과 보이는 각 신체 부위의 겉모습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한다.<sup>38)</sup>

바트키는 그의 연구를 통하여 일정한 '육체의 양식'으로서의 여성성은 전혀 다른 무엇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전혀 다른 무엇이란 여러모로 거울의 상처처럼 여성성의 대립적 상에 불과한 남성성이 아니라 근본적이면서도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자의 몸을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바트키는 주장하고 있다.<sup>39)</sup> 바트키의 이러한 논의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여성의 몸에 대한 변형과 왜곡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여성의 몸에 대한 변형과 왜곡의 디자인은 바트키가 말하는 '훈육적 관행'에 의해 이상적인 여성의 몸으로 고정된 '육체적 양식'의 탈고정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패션이 전통적 여성성 극복을 위한 미시적 저항지점으로 작용하는 있음을 의미한다.

#### IV. '육체적 양식'의 탈고정화를 통한 디자인 분석

몸과 패션은 하나로 결합하여 문화내의 주요 상징으로 드러나며 도덕성과 경제적 상황, 기술적 발달 등이 은유 되는 하나의 텍스트로 독해를 요구하는 기표로서 보여지게 된다.<sup>40)</sup> 패션은 그 정의상, 인간의 몸의 조건에 따라 형태가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술(anthropocentric art)이다. 그로 인해 일반적으로 순수예술로 지칭되는 조형예술의 분야와는 달리 추상성을 결여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몸으로 귀결되는 예술인 것이다.<sup>41)</sup> 따라서 '여성성'의 변화에 따른 여성 신체 이미지의 변화는 패션에서의 여성 신체 표현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이는 패션이 어떠한 경우에도 몸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육체적 양식의 탈고정화는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도 패션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저항지점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즉, 현대 여성신체 이미지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성담론에 의한 탈고정적 성표현으로 인하여 기존의 아름다운 신체에서 벗어난 탈고정적 신체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제안되는 탈고정적 신체 이미지는 패션에서 기존의 여성미를 표현하는 많은 디자인들을 변형, 왜곡하는 작업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기존의 환상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지배체계에서 구조화된 여성이미지를 벗어남으로써 여성 신체의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게 하였다. 즉, 고정적인 아름다운 여성 신체를 의상을 통해 변형, 왜곡시킴으로써 여성신체 이미지를 탈고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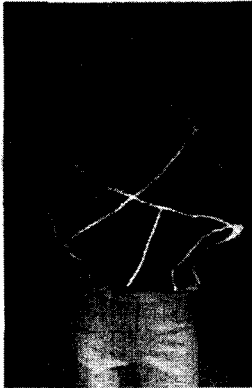
고정적인 아름다운 여성 신체를 생산해내는 혼육적 관행은 앞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바트키에 의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 네 가지 범주의 관행 중 '일정한 크기와 일반적인 외모의 몸을 만들어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행들'에 대해 실제 패션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비분리적 신체 표현'과 '비정형적 신체 표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비분리(非分離)적 신체 표현

현대 소비문화 속에서 몸은 점점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른바 '연기하는 자아'를 조장하였다. '연기하는 자아'는 혼육적 관행, 즉 규칙적인 운동, 개인적인 건강 프로그램, 고섬유 식이요법, 그리고 패셔너블한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조율하고 보살피며, 개조하고 주도면밀하게 전시해야 할 일종의 기제로서 몸을 취급한다. 소비문화 속의 몸은 침실 안팎 어디에서나 전시되는 대상물이 되면서 점점 혼육적 관행에 의해 사회가 요구하는 몸으로 재생산된다. 보바르는, 여성이 내재성에 갇힌 채 육체의 형태, 기능 등에 의해 정의되고 규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상적인 육체의 형태, 기능 등은 남성적 담론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이러한 담론을 탈피하고 담론에 저항하는 것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주요 사안이 되었다. 이에 패션은 그러한 남성적 담론의 재생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에게 그러한 담론에 의해 강요되었던 이상적인 육체적 양식에 저항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비분리적 신체 표현은 일반적인 외모로서의 몸이 아닌, 전통적 관념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를 표현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경향은 이상적인 육체적 양식에 저항함과 동시에 혼육적 관행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몸을 탈피시키며, 더 나아가 여성 신체 이미지의 탈고정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정한 크기와 일반적인 외모를 목적으로 하는 관행들은 이상적인 여성성을 갖춘 몸-따라서 여성적인 몸-주체-이 구성되는 과정의 일부로 작용한다. 즉, 혼육적 관행들은 '훈련되고 종속된' 몸, 즉 열등한 지위가 새겨진 몸을 만들어 낸다. <그림 1>과 <그림 2> 같은 디자인은 이러한 여성성의 자리가 새겨진, 열등한 지위의 몸의 양식이 새겨진 자리를 지움으로써 전통적 여성성을 극복하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의 디자인은 남성과 여성의 몸이 가장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상체의 특성을 의복을 통하여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인체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지(四肢) 중 두 팔을 제거하고 구속함으로써 인간의 몸에 대한 새로운 변형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 신체 중 가장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여러 의미를 내포하였던 가슴을 팔과 함께 은폐함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한, 즉 여성성이 새겨진 자리를 지워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00/01 F/W Masaki Matsushima, Collection Paris p. 426



<그림 2> '00 S/S Alexander McQueen, 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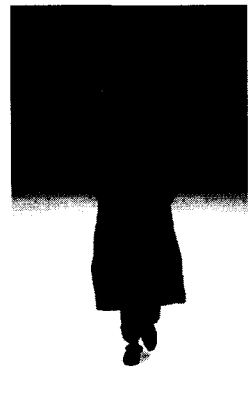
<그림 3>에서 <그림 7>의 디자인들은 신체의 특징인 어깨와 팔, 몸통과의 구분을 패션을 통하여 변형시키고 있다. 즉, 남성적 담론에 의해 정의된 이상적인 육체의 형태와 기능을 비분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상적인 육체적 양식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의 디자인은 몸통과 팔을 완벽하게 접합시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손만을 남겨놓아 신체에 있어 팔이 차지하던 이미지의 비중을 모두 제거하고 전통적으로 규정된 형태와 기능을 무시함으로써 전혀 다른 신체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그림 4>의 디자인은 몸통과 팔을 부분적으로 접합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신체 이미지가 아닌, 기형아적인 신체 이미지를 유발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정된 몸과 팔의 형태와 팔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비분리적 신체를 통하여 탈고정화 하고 있다. 비분리적 신체 표현은 혼육의 대상으로서의 여성 신체를 이상적인 몸으로 정형화되지 못하는 기형아적인 신체로 표현함으로써 정형화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신체를 해방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림 5>의 디자인은 한쪽 팔을

모두 접합시켜 양쪽 신체의 비대칭을 구현함과 동시에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분리적 신체 표현으로 기형아적인, 불구의 신체 이미지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 이미지는 혼육적 관행에 의해 정형화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신체를 이상적인 몸으로 정형화되지 못하는 불구의 신체로 표현함으로써 정형화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디자인은 혼육적 관행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몸을 탈피시키며, 더 나아가 이러한 이미지가 여성 의복에서 구현됨으로써 여성 신체 이미지의 탈고정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보여지는 디자인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목과 어깨, 머리를 접합, 변형함으로써 전통적 담론 내에서의 이상적인 여성의 몸 이미지를 탈고정화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여성의 몸이 의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괴기스럽고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 즉 고정화된 여성 신체 이미지에 대한 환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들은 과거의 패션이 인체의 형태를 가장 인간답게, 즉 신체 각 부위가 온전히 존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인체의 각 부분을 패션을 통하여 접합하고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몸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현대 패



<그림 3> '98 S/S Hussein Chalayan, www.firstview.com



<그림 4> '00 F/W Yohji Yamamoto, www.firstview.com



<그림 5> '99 F/W Yohji Yamamoto, www.firstview.com



<그림 6> '99/00 F/W Gomme, Collection Paris p.539



<그림 7> '98 F/W Hussein Chalayan, www.firstview.com

선의 역할이 아름다운 몸으로서의 여성 신체 양식을 재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체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 각도에서 실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육체적 양식'을 통한 여성성의 고정화에 도전하는 미시적 저항지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몸은 정치적 행동과 저항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혼육적 관행에 의해 양식화를 위한 대상으로서의 몸은 그에 대한 저항으로서 패션을 통하여 변형,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위의 디자인들은 양식화된 몸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수단으로 패션이 작용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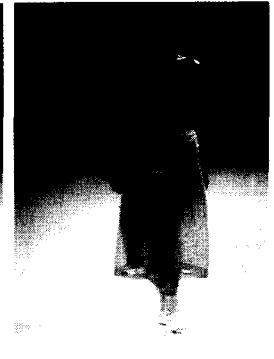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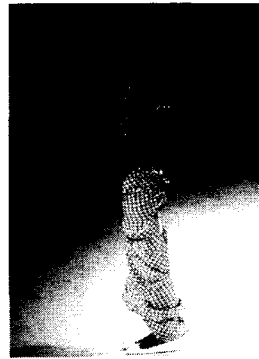
## 2. 비정형(非定型)적 신체 표현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모든 사물이나 세계가 변화 가능한 '만들어진 것' 내지는 '구조된 것'이라는 구조주의와 기호학적 입장에 의존하여 여성은 기호의 자의성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비고정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여성을 구축한 구조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여성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비정형적 신체 표현은 여성을 구축하는 장으로서의 몸을 해체함으로써 여성관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절대적인 근원이나 기초가 되는 중심적 체계와 통일성의 원리가 지배해왔던 여성의 몸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육체적 양식의 탈고정화를 통한 여성성 극복을 위한 디자인 경향은 신체 일부분의 변형 및 왜곡의 경향을 포함한다. <그림 8>은 어깨와 팔꿈치에 튀어나온 뼈의 이미지를 디자인을 통해 부과함으로써 아름다운 여성 신체가 아닌, 즉 고전적인 몸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운 몸이라 일컬어지는 양식화된 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통해 제안되는 여성성의 탈고정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9>와 <그림 10>의 디자인은 여성의 몸에서 극도로 제한되어야 할 혼육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일부 신체의 근육을 복식을 통해 오히려 도드라지게 표현함으로써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몸 이미지에 대한 탈고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림 11>의 디자인은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슴을 의복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여성의 가슴에 대한 환상을 부정하고 있다. 즉, 아름답고 모성애를 유발시키는 가슴으로서가 아니라 비뚤어져 있어 흉하고 못생긴 가슴을 표현함으로써, 여성의 가슴은 때론 크기가 짝짝이일수도, 위치가 비뚤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위의 디자인은 이러한 가슴을 가진 여성의 몸 또한 실질적인 여성의 몸이 가질 수 있는 신체의 특성을 자각시킴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여성의 몸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구조화된 여성 이미지에 대한 관념을 탈정형화 한다. <

그림 12>에서 <그림 14>의 디자인들은 인체의 각 부분-등<그림 12>, 배<그림 13>, 어깨 및 가슴과 목<그림 14>-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또한 울퉁불퉁하게 표현함으로써 여성 신체를 변형, 왜곡하고 있다. 즉, 여성의 모습이 비틀려 있고 몸이 이상하고 거기에 기괴한 신체 특성을 부과하여 몸이 일그러져 보이게 함으로써, 괴물 같고 이상야릇한 여성의 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의 의미는 비미학적이며 전통적 담론 내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림 15>의 디자인은 몸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변형, 왜곡하고 있다. 바트키가 말하는 바 혼육적 관행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강요되어져 온 '날씬한,

단정한, 작고 좁은, 예쁜' 몸의 양식에서 벗어나 뚱뚱하고, 너무 크고, 짹짹하고, 울퉁불퉁하고, 미운 몸의 형태를 의복을 통해 부과함으로써 여성의 몸 에 대한 혼육적 관행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2> '97 S/S Comme Des Garçons,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그림 13> '97 S/S Comme Des Garçons,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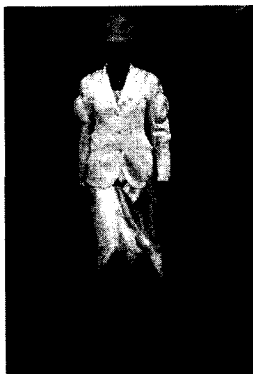
<그림 8> '00 F/W Issey Miyake,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그림 9> '00 F/W Issey Miyake,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그림 14> '97 S/S Comme Des Garçons,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그림 15> '97 S/S Comme Des Garçons,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그림 10> '00 F/W Issey Miyake,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그림 11> '97 F/W Comme Des Garçons,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이러한 디자인의 경향은 신체의 일부분들을 변형, 왜곡하여 비정형의 신체를 표현함으로써 전통적 담론에 의한 이상적인 인체의 형태에 대한 개념을 해체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몸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부분적인 신체 특징을 여성 복식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이분법에 의해 남성은 자아, 여성은 자연으로 이해되어 왔다. 자아는 자연, 즉 황야, 대지,

초목지를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문명화한다. 이분법에 의해 남성에게 여성은 문명화의 대상으로서 이해되며, 지배하고 정복해야 하는 자연의 한 형태가 된다. 문화적으로 소위 '자연스러운' 여성의 육체적 특징(예를 들면, 가는 허리, 작은 발, 긴 머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세화 된 혼육적 관행의 습득이 필연적이다. 보봐르가 말한 바 '옷을 차려 입고 치장한 여성에게 있어 더 고도로 발달되고 더 엄격하게 제한된 자연이 나타날수록 그 여성은 더 바람직한 여성이 된다'라는 의미는 더 엄격하게 자신을 사회적 혼육에 길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전통적인 여성성에 근접한다는 의미이다. 문화 속에서 남성에게 의해 규정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규제적인 치장 관례, 즉 혼육적 관행을 통해 여성이 '되도록' 권유받는다. 혼육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권위체제에 속한 하급자들에게 강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육의 증거인 이상적인 몸매에 대한 변형과 왜곡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위치를 자각시키고, 불평등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킨다. 전통 형이상학적 관념에서 그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제일원리나 절대적인 기초로 정의되었던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른 중요한 것들을 제외시킴으로써 그 존재 이유를 부여받으며, 또한 정의되고 있다. 즉, 가장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몸 양식은 양식화되지 않은 몸을 제외시키고 몸의 다양성과 자연적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절대적인 여성의 몸 양식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이러한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몸 양식은 몸 양식의 규율화와 세부적 양식화를 통하여 여성에게 강요되었다. 몸은 전통적인 여성성과 이상적인 몸의 양식으로 혼육됨으로써 '강제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를 구축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몸은 여성억압의 토대로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몸 양식의 기호에 대한 탈피는 여성성의 탈고정화와 억압으로부터의 여성 해방을 유도한다.

본 장에서 고찰한 디자인 경향들은 전통적 담론 내에서의 이상적인 몸 양식을 디자인을 통하여 변형, 왜곡함으로써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있는 고정적인 여성성에 대한 개념을 탈고정화 시키고 있는 것

이다. 여성신체 이미지의 탈고정화를 위한 신체의 변형, 왜곡 등의 디자인은 여성성의 고정화를 재생산했던 과거 패션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몸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여성성의 고정화에 반발하는 미시적 저항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시권력에 의해, 즉 혼육적 관행에 의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혼육되어져 막연히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여성에게 주입되어져 온 이상적인 여성 신체 이미지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그 고정성을 탈피해야 함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 디자인 분석 대상으로 삼은 디자인 경향들은 육체적 양식의 탈고정화를 통하여 기존의 여성적 몸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일탈을 표현함으로써 사회·문화 전반에서 다양한 방법과 유형으로 재생산되어온 이상적인 여성 신체 이미지와 여성성의 테제(these)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경향은 현대에 있어서도 일부의 전위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서만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여성 신체의 변형, 왜곡은 아직까지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인 유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또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결과물으로써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경향은 디자이너의 의도와는 별도로, 이러한 디자인들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이 현대의 여성 신체 이미지의 탈고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 신체 이미지의 탈고정화를 유도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분석,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몸 양식의 탈고정적 표현 디자인 경향을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통해 분석 시도하였다. 이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제안하는 기존의 여성성을 탈고정화 시켜야 한다는 전략적 방안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여러 디자인 특

성 중 여성 신체의 변형과 왜곡이라는 경향을 설명하기에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21세기의 다양한 이미지 생산의 원인 및 방식 등을 설명 가능하게 한 미셸 푸코의 미시권력 개념을 이용하여, 미시권력의 하나인 혼육적 관행에 의해 현대 여성 몸 이미지의 이상적인 양식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론은 정신분석학 이론, 해체 이론, 권력 이론 등 동시대의 다양한 담론들을 활용하고, 특히 주체나 사물의 본질이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는 전통적 철학을 부정하는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론적 특징을 갖게 되었다. 첫째, 타자는 여성으로 대변된다는 것을 통하여 여태껏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을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립하고 있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이론을 통하여 남녀 이분법을 해체하고 있다. 셋째,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성의 탈고정화 및 여성 몸 양식의 탈고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결국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지배적이었던 권력자체를 해체하고 다양한 차별적인 것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몸의 관계에 있어, 지배적 담론에 의해 타자로 놓여져 왔었던 여성신체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이르러 탈고정성을 획득하였으며,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포스트모더니즘 이전 시대의 몸의 이미지에 대한 시대적 기호를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적 기호는 미시권력인 ‘혼육적 관행’에 의해 이상적인 여성의 몸에 대한 ‘육체적 양식’이 고정화 된 것으로, 여자의 ‘유순한 몸’을 구축해내는 혼육적 기술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혼육적 관행들은 영속적이고 빈틈 없는 규제-몸의 크기, 모양, 욕망, 자세, 동작에 대한, 그리고 전반적인 처신과 보이는 각 신체 부위의 겉모습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하며, ‘중속되고 혼련된’, 즉 열등화 된 여성의 몸을 생산해낸다.

따라서 일정한 ‘육체적 양식’으로서의 여성성은 전혀 다른 무엇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임을 본 연구에서는 지적하였으며, 그 방향의 하나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여성의 몸에 대한 변형과 왜곡을 디자인 분석하였다. 이는 패션이 ‘혼육

적 관행’에 의해 이상적인 여성의 몸으로 고정된 ‘육체적 양식’의 탈고정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성 극복을 위한 미시적 저항지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의 전략 중 하나인 이미지화 된 여성, 주물화 된 여성의 신비를 일탈시키는 작업이 현대 패션에 있어 여성 신체 이미지의 탈고정화를 향한 비분리적 신체 표현, 비정형적 신체 표현의 디자인 경향과 긴밀히 연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참고문헌

- 1) 타자(other)는 배제되고, 기피되고, 쫓겨나고, 불리한 조건하에 놓이고, 특권이 없고, 거부당하고, 부름 받지 않으며, 버림받고, 전이되고, 주변부화 되는 것으로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의 저서 <The Second Sex>(1953)에서 발전시킨 개념이다.
- 2) 남녀 이분법의 해체 경향은 이정은(1998), 김미경(1999), 김은실(1999), 석재민(1999), 손미희(1996), 채수진(1999), 유은정(1997) 등 다수의 논문에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패션 경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정은(1998), 김미경(1999), 김은실(1999), 석재민(1999), 손미희(1996) 등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특성을 양성적 특성과 해체적 특성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패션에서는 앤드로지너스(androgenous), 젠더리스(genderless), 유니섹스(unisex), 듀얼리즘(dualism) 등의 스타일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페미니즘 시각에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연구한 채수진(1999)은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에 양성적, 중성적 특성 및 상호 텍스트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유은정(1997)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제2세대 페미니즘이라 칭하고 그 복식 표현양식을 탈고정적 성표현, 방법론의 해체적 표현, 신체의 새로운 성표현으로 분류하고, 탈고정적 성표현은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중심으로 양성적, 중성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방법론의 해체적 표현은 푸어룩(poor look), 신체의 새로운 표현은 레프트룩(wrapped look)을 통해 설명하였다.
  - 이정은(1998). 페미니즘의상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 인지경향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1999). 현대 여성Suit의 페미니즘 표현양식



- 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실 (1999). 페미니즘이 1990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재민 (1999). 페미니즘이 현대 의상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미희 (1996).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수진 (1999).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식미술과 석사학위논문.
- 유은정 (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표현양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이들은 모두 포스트구조주의 사상가들로서 포스트구조주의 논리는 '언어'를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 조직과 사회적 의미, 권력과 개인의 의식을 분석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인 언어는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거나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즉, 언어는 개인의 주체성을 구체적인 사회적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Chris Weedon, 조주현 역 (1997). 여성해방 실천과 후기구조주의 이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29.
- 4) 김옥동 편 (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현암사, pp. 51-52.
- 5) 김홍희 (1994).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월간미술, 8월호, pp. 165-166.
- 6) 자아는 자신의 모습을 나르시시즘적으로 보고 느끼는 거울단계인 상상계 속에서 자라서 차차 언어를 배우고,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사람들과 의미를 소통하면서 상징계(symbolic order)에 진입한다. 상징계에서는 주로 초자아(super ego)가 작용하게 되는데, 초자아가 하는 일은 리비도(libido)적 욕망을 억제하여 인간 주체가 상징계를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울단계에서 형성된 자아의 정체성은 완전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체는 일생 동안 상징계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실제의 자신과 일치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인간 주체는 끊임없이 사회, 문화적 층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살아간다. 즉, 사회에서 부과하는 자신의 이미지와, 스스로 바라보는 자신의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항상 체크하고, 그 간극을 좁히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활동은 문자언어, 이미지, 음식, 토속문화, 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김혜영 (2000).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과 가시성에 대한 연구 -후세인 칼라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복식, 50(4), pp. 8-9.
- 7) Chris Weedon, 조주현 역. 앞의 책, p. 68.
- 8) 김홍희 (1992).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방향 모색을 위한 페미니즘 연구. 미술세계, 9월호, p. 30.
- 9) 김옥동 편. 앞의 책, "언어와 욕망", p. 185.
- 10) 오유민 (1999).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11) Chris Weedon, 조주현 역. 앞의 책, p. 137.
- 12) 김홍희. 앞의 책, 1994, p. 167.
- 13)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대상인 여성의 '몸'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서의 이상적인 양식은 여성 신체를 규정하는 권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권력 작용의 예시는 본 논문의 pp. 9-11의 '2. 몸 양식의 고정화를 유도하는 혼욕적 관행'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14) 오유민. 앞의 책, p. 24.
- 15) 케티 콘보이 외 엮음, 고경하 외 편역 (2001).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의 상품화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 한울, p. 19. 서론 중에서.
- 16) 이미영 (1996).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미술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0.
- 17) 손보경 (1996).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식 연구 -조지오 아르마니와 도나 카란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2-13.
- 18) 오유민. 앞의 책, pp. 5-6 재인용.
- 19) 이미영. 앞의 책, pp. 30-31, 재인용.
- 20) Paul Mattick, Jr, Beautiful and Sublime. "Gender Totemism" in the constitution of art, in feminism and tradition in aesthetics. p. 29. 위의 책, pp. 34-36 재인용.
- 21) 최현숙 (1999).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
- 22) 오유민. 앞의 책, p. 27.
- 23) 위의 책, p. 28.
- 24) Simone de Beauvoir (1953). *The second sex*, p. xxix.
- 25) 위의 책, p. xviii.
- 26) 위의 책, p. 179.
- 27) Michel Foucault (1979).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Penguin, pp. 135-169.
- 28) 케티 콘보이 외 엮음, 고경하 외 편역. 앞의 책, pp. 11-14. p. 197.
- 29) 샌드라 리 바트키, 윤효녕 옮김 (2001). "푸코, 여성성, 가부장적 권력의 근대화".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p. 206.
- 30) Michel Foucault. 앞의 책, p. 138.
- 31) 샌드라 리 바트키, 윤효녕 옮김. 앞의 책, pp. 209-210.
- 32) 1985년 3월 22일 미국철학회 태평양분과에서 발표된 미발간 원고: Judith Butler, "Embodied Identity in

- De Beauvoir's *The Second Sex*", p. 11 참조: Judith Butler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참조, 위의 책, p. 210 재인용.
- 33) 위의 책, p. 211.
- 34) 위의 책, p. 213.
- 35) 위의 책, pp. 221-222.
- 36) "여성성을 실현하기 위해 여자는 자신을 대상물과 먹이로 만들어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주권적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받는다." Simone de Beauvoir (1968). *The second sex*. New York: Bantam Books, p. 642.
- 37) 샌드라 리 바트키, 윤효녕 옮김. 앞의 책, p. 223.
- 38) 위의 책, pp. 227-228. pp. 235-236.
- 39) 위의 책, p. 233.
- 40) 최현숙. 앞의 책, p. 12.
- 41) Michael Kelly (ed.) (1998). *Encyclopedia of aesthe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Vol.2, p. 154.